

‘섬 식수난 해결’ 해남~완도 해저관로 뚫는다

전남도·완도군 총 연장 31.1km 해저관로 추진

보길·노화도 등 섬지역 광역상수도 공급 기대

극심한 식수난에 시달리고 있는 전남 완도군 노화·보길도 등 섬지역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 해남~완도 간 해저관로 설치사업이 추진된다.

30일 완도군에 따르면 전남도가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화·보길도 지역주민의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해 광역상수도용 해저관로 설치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남도와 완도군은 2023년 해저관로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및 실시설계를 시행할 예정이다.

해저관로 설치사업은 총사업비 433억원을 투입해 해남 남창에서 완도 노화도까지 육상 21.9km, 해저 9.2km 등 총 연장 31.1km의 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노화도, 보길도, 넓도, 백일도, 흑일도, 마삭도 등 6개 섬지역 주민들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노화·보길지역 인구는 7889명으로 지난 3월부터 2일 급수, 8일 단수를 시행하고 있다.

완도군은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길도 부항제 아래에 지하수 저류지 댐을 설치하고 있으나 가뭄이 지속될 경우 저류지의 기능이 상실될 것으로 보여 해저관로를 통한 광역상수도 시급한 실정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최근 노화·보길도 등 식수난을 겪고 있는 섬지역을 방문해 해저관로 설치사업 계획을 밝히고 환경부 등과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완도군은 30일 섬지역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해 해저관로를 통한 광역상수도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신우철 완도군수는 최근 식수난을 겪고 있는 보길·노화도를 방문해 현황을 파악했다. (사진=완도군 제공)

완도군 관계자는 “물 부족 사태로 섬 주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소중한 삶의 터전이 황폐화되지 않도록 광역상수도 공급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전남도가 지난 2015년 전국 최초로 해남 종합병원에 설치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모습. (사진=전남도 제공)

‘전국 최초 추진’ 전남형 공공산후조리원 더 늘린다

120억 투입 3개소 추가 설치키로

전남도가 저출산 극복과 출산 후 쾌적한 양육서비스 환경 제공을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한 ‘전남형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가 확대된다.

전남도는 현재 5개 지역에 들어선 공공산후조리원이 산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120억원을 들여 3개소를 추가로 설치키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남형 공공산후조리원은 지난 2015년 제1호 시설이 해남 종합병원에 전국 최초로 설치됐다. 이후 2018년 강진의료원, 2019년 완도대성병원, 2020년에는 나주 빛남종합병원에 4호 시설이 개소했고, 올 3월 순천 현대여성아동병원에 5호점을 임시 개원했다.

공공산후조리원이 설치된 지역은 이용자가 매년 늘고 있다.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남지역 출생아는 8430명으로 전국의 3.2%를 점유했다. 이 가운데 출산 후 도내 산후조리원(민간병원 포함)을 이용한 산모는 5096명(60.5%)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전남형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904명(17.7%)으로 2020년(382명) 대비 3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전남도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2~2023년 지방소멸대응기’를 활용해 3개소를 확대 설치함으로써 산후조리서비스 질을 높여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

현재 전남공공산후조리원은 거점별로 5개 지역에 고루 분포해 있다. 전남 전체 지역 산모들이 30분 이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이 가능해 쾌적한 출산서비스 혜택을 톡톡히 누리고 있다. 저렴한 이용료와 수준 높은 서비스, 깨끗한 시설로 산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2015년 해남종합병원 1호점 개원 이래 2021년 기준 2800명의 산모가 이용했다. 만족도도 매우 높은 편이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광주 복합쇼핑몰 경쟁에 롯데도 가세... ‘유통 빅3’ 자존심 대결



현대백화점·신세계그룹에 이어 롯데까지 광주 복합쇼핑몰 건설에 가세하면서 백화점 ‘빅3’의 개발 경쟁이 본격화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 현실화 되는 모습이다. <관련기사 11면>

30일 업계에 따르면 광주시는 최근 롯데그룹에 북구 우치동에 위치한 광주패밀리랜드 용지를 복합쇼핑몰 조성지로 제시했다.

이 곳은 1991년 ‘금호패밀리랜드’로 문을 열었다가 금호 측이 운영에 손을 뗀 뒤 민간 사업자가 수탁해 관리하고 있다. 한때 호남권 최대 테마파크로 명성을 얻었지만, 시설 노후화로 관람객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면적은 22만9031㎡(약 7만평)으로 신세계가 개발 계획을 밝힌 스타필드 광주 어등산 용지(29만7500㎡)보다 규모가 작다. 하지만 인접한 동물원, 경관녹지 등 우치공원 일대로 확장하면 훨씬 늘어난다.

롯데는 어등산, 북구 양산동 롯데칠성 공장 부지 등과 함께 이 일대를 복합쇼핑몰 건립 부지로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가 롯데 측에 제안한 복합쇼핑몰 계획안에는 제3롯데월드 어드벤처 건설안이 포함됐다.

광주시는 우치동 용지에 광주패밀리랜드가 위치해 있는 만큼 시설 재단장 방식으로 롯데

롯데, 우치동 광주패밀리랜드 부지에 제3롯데월드 건립 유력

‘더현대·스타필드·롯데월드’ 등 유통 3사 3색 경쟁구도 잡힐 듯

월드 어드벤처 건립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롯데 측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가 광주시 안을 받아들이면 서울 잠실과 부산에 이어 호남권에 세 번째 롯데월드가 들어서게 된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광주 지역 우치동 부지는 복합쇼핑몰 건립을 위해 검토한 3가지 부지 중 하나였는데 광주시 측에서 먼저 제

안이 왔다”며 “그러나 놀이공원 조성은 당초 계획에 없었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 힘든 사업이라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검토 과정이 끝나면 공시 발표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롯데그룹은 광주에서 롯데백화점 광주점과 롯데아울렛 수안·월드점점, 롯데마트 맥스 상무점 등을 운영 중이지만 복합쇼핑몰은 없다.

경쟁사들이 백화점·대형마트와 워터파크, 체험형 스포츠시설, 공연장, 영화관까지 두루 갖춘 초대형 엔터테인먼트형 복합쇼핑몰 개발 계획을 밝힌 만큼 롯데도 이에 필적하는 복합쇼핑몰 건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국내 산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 넣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그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

을 밝힌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롯데 유통 사업군은 그동안에도 인천 송도와 서울 상암 등지에서 고용 유발과 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가 높은 대규모 복합쇼핑몰 사업을 적극 검토해왔다.

광주광역시는 인구 150만명에 이르는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새롭고 트렌디한 문화 및 유통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호남, 특히 광주를 겨냥해 ‘복합쇼핑몰 유치’라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 같은 공약이 대선까지 원정쇼핑에 나서던 호남 민심을 자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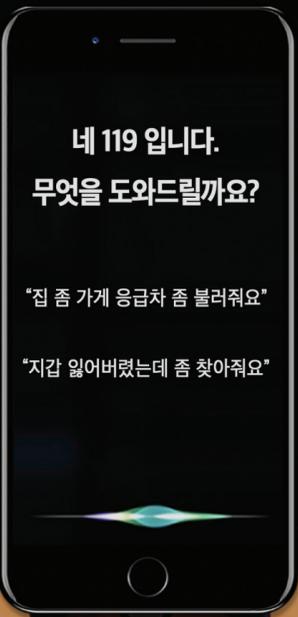
유통사 입장에서 호남은 매력적이다. 호남은 인구가 400만명에 달하고 광주, 전주, 여수, 목포 등 대도시가 많아 타 지역에서 출점 한계에 다다른 유통사들이 확장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미 앞서 유통사들은 수년 전 ▲전남 광양·순천·목포·여수 ▲전북 전주 등에 참고형 할인점 등의 출점을 시도했으나 지역 사회 반대로 추진이 좌절됐다.

정승호 기자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네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집 좀 가게 응급차 좀 불러줘요”

“지갑 잃어버렸는데 좀 찾아줘요”

소방관은 비서가 아닙니다.

3년간 소방관의 사소한 생활민원성 출동 124만 9932건, 하루 평균 1,141회
 119 본연의 임무는 응급구조입니다.